다산포럼

봄날은 간다

송 재 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봄은 왔고 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봄날은 가고 있다. 복사꽃, 살구꽃, 진달래, 라일락이 피어나는 봄은 찬란하고 아름답다.

중국 송나라의 시인 소식(蘇軾)은 "봄밤 일각(一刻)은 천금의 값어치가 있다(春宵一刻値千金)"라고 했다. 봄이 그토록 찬란하고 아름답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찬란한 아름다움은 우리 곁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러기에 봄의 끝자락엔 늘 아쉬움이 남는다. 가는 봄에 대한 미련과 애잔한 슬픔의 정서를 노래한 작품이 많은 것은 이 아쉬움 때문일 것이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작품이 백설희가 부른 노래 '봄날은 간다'가 아닐까?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 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 오늘도 꽃 편지 내던지며 청노새 짤랑대는 역마차 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약에 봄날은 간다"

"열아홉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 오늘도 앙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작로 길에/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얄궂은 그 노래에 봄날은 간다"

1954년에 발표된 이 노래는 곡도 곡이려니와 서정적인 노랫말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2003년, 계간지 '시인세계'의 설문조사에서 시인들이 애창하는 대중가요 1위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시인 김사인 씨도 최근 이 노랫말을 '국민 애송시'라고 했다.

연분홍 치마를 봄바람에 휘날리면서 열아홉의 풋풋한 아가씨가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 길'에서, '청노새 짤랑대는 역마차 길'에서, '뜬구름 흘러가는 신작로 길'에서 가는 봄을 아쉬워하고 있다. 이 아쉬움은 '꽃'과 '새'와 '별'을 두고 맹세한 임의 부재(不在)로 인한 슬픔과 겹쳐진다. 그래서 더 애틋하다.

이 노래는 그 후 이미자, 조용필, 주현미, 심수봉, 나훈아, 최백호, 장사익 등에 의해서 꾸준히 리메이크되어 불렸다. 그만큼 널리 사랑받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들은 각기 제 나름의 독특한 창법으로 노래했는데 이 중 장사익이 부른 노래가 기억에 남는다.

2004년 2월의 어느 날, 동숭동 옛 서울문리대 교정에서 김진균 교수 영결식이 거행되었다. 김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재직하면서 노동 운동의 대부로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온몸을 던져 활동하다가 정년퇴직한 다음 해에 서거했다. 이에 노동자 단체 연합으로 김 교수 영결식이 거행된 것이다.

그때 나도 식장에 있었는데 좀 독특한 형식의 영결식이었다. 가장 인상에 남은 것은 장사익 씨의 노래였다. 장사익 씨가 단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데 뜻밖에도 그는 '봄날은 간다'를 불렀다. 나는 깜짝 놀랐다. 엄숙한 영결식장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다니, 식장의 분위기와 걸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절, 2절, 3절로 이어지는 노래를 듣는 동안 나도 모르게 숙연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가는 봄을 아쉬워하는 것은 그토록 아름답던 봄이 짧게 머물다 가버리기 때문일 터인데, 이 노래는 아름다운 삶을 남기고 봄처럼 훌쩍 가버린 김 교수를 아쉬워하는 듯했다. 이렇게 이 노래가 영결식과 기묘한 조화를 이룬 것은 호소력 있는 장사익 씨의 창법에 힘입은 바 크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노래의 멜로디와 노랫말이 지닌 뛰어난 예술성이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정서를 자극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2017년의 봄도 어김없이 가고 있다. 봄이 가는 것은 아쉽지만, 탄핵 정국 속에 치러진 '장미 대선'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기에 가는 봄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은 달랠 수 있지 않을까?

NGO 칼럼

꿈이 '토사장'이라는 청소년을 나무랄 수 있나

한 은 경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장

'픽스터', '토쟁이', '유출픽', '토사장'. 이른바 도박 은어들이다. 독자 가운데 이런 단어를 잘 알고 있다면 온라인 도박 트렌드를 잘 알고 있는 분이다. 최근 들어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에 대한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어른들의 반응은 너무 안일하다. 청소년이 웬 도박이라며 의아해하는 경우에서부터 특별한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거니 하거나 청소년기 통과의례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아주 오래 전에도 도박을 과도하게 즐겨 문제가 된 청소년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2017년 대한민국 청소년 도박문제는 예전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평범한 중학생이 갑자기 중고나라 인터넷 사기로 경찰서를 오가는 경우에서부터 도박으로 딴 돈으로 노트북을 샀다가 되팔아 다시 도박을 하는 청소년, 도박으로 딴 돈 이천만원으로 가출한 뒤 원룸에서 독립했다는 청소년 등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를 찾는 청소년과 가족들이 말하는 현실은 요사이 청소년 도박문제가 과거의 도박문제와는 매우 다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도박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청소년 도박문제의 실태와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재학 중인 중고생 가운데 약 3만명(1.1%)이 치료적 개입이 시급한 문제군이며, 도박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으로 파악된 중고생들 또한 11만명(4.0%)에 이른다. 청소년들이 처음 도박을 접하게 되는 시기는 초등학교 무렵이며, 주로 친구들을 통해서, 그리고 인형 뽑기와 같은 기계게임을 가장 빈번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박을 접하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성인기 도박장애로 전개될 위험성이 증가하며, 대부분이 불법인 온라인 도박의 특성상, 자신도 모르게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되는데다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도박은 오프라인에 비해 중독 위험성이 훨씬 배가되는 등(한 연구에서는 10배 이상)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대목은 청소년기 도박이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불법도박이 주는 유혹(요행에 의한,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착각 등)은 노동의 가치와 노력의 정당함에 대한 의미부여, 내면세계와의 소통을 통한 건강한 자기와 미래관 형성 등 청소년의 소중한 가치체계 발달과정을 좀먹는 바이러스와도 같다.

도박으로 돈을 잃고 따고 반복하기를 1년 남짓 해오던 한 청소년은 이렇게 말한다. "고만고만한 직장 들어가서 힘들게 일하고 살 바에야 도박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돈을 많이 모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토사장)이 되고 싶어요". 어느새 토사장이 꿈인 미래가 되어 버린 것이다. 물론 하나의 사례이지만, 욕구조절, 스트레스 대처력, 또래간의 사회적 압력 등에 취약한 청소년기의 특성과 온라인 도박이 만나면서 청소년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도박은 하면 할수록 잃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있고, 도박의 정의 또한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가치있는 것을 걸고 내기를 하는 행위이다.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 또한 도박을 즐기는 인간을 가리켜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 확실한 것을 걸고 내기하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어야 할 청소년이 왜곡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확실한 현재를 베팅하는 일! 이는 그간의 우리사회가 만들어놓은 취약한 사회환경문화적 구조로 인해 현재의 청소년이 겪는 사회적 통증이자,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에서부터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예방교육 의무화 등 학교 안팎으로의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관련 법규마련이 시급하지만 무엇보다 사후 처방이 아닌,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임을 인식하는 태도변화가 절실하다.

기 고

하늘이 아닌 땅의 이야기

김 철 성
전남도립대 직원

'사람이 먼저다.' 많이 들어본 글귀다. 그렇다. 새 대통령이 서명 때 자주 애용하는 글귀다. 일전 대통령이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어떤 학생이 사인을 받고자 공책을 꺼내는 동안 함께 쭈그려 앉아 있었던 소탈한 모습이 보도돼 화제가 됐던 그 사인에도 있던 글귀다. 이 글속에 함의된 뜻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압축하긴 어렵지만 현대인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물신주의'보다 우선순위가 '인본주의'라는 얘기다.

성경(마태오)의 (하늘나라)포도원 이야기가 있다. 요약하자면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 인부를 구해 포도원 일을 시키는데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다. 일꾼들은 한꺼번에 똑같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이른 아침, 아홉시쯤, 열두시, 오후 3시와 5시쯤에 각각 포도원에 투입됐다. 일이 끝나고 임금을 주는데 맨 나중에 온 일꾼들부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가. 꼬박 하루를 일한 사람과 뒤늦게 일을 시작한 사람의 임금이 똑 같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상의 얕은 눈으로 보면 불공평하다. 그러니 하늘나라 일인 것이다.

뒤늦게 포도원에 투입된 인부들의 하소연도 들어보자.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서'라고 했다. 즉 경쟁대열에서 이탈한 상대적 무능력자인 소외계층 사람이다. 오래 전 영화 '월컴투 동막골'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온다. 인민군 군관이 동막골 최고 어른에게, 고함 한 번 지르지 않고 부락민들을 휘어잡는 영도력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묻자 "뭐를 좀 마이 맥여야지"라고 대답했다.

새 정부도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지시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이었다. 결과는 당연히 실업자 제로인 전 국민의 정규직화로 대미를 장식해야 한다. 일자리가 곧 밥이 아닌가.

필자가 아는 회사의 새 사장은 내부에서 승진한 사람이다. 그는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인적청산이 아닌 인적쇄신을 강조했다. 전자가 아웃을 상징한다면 후자는 인(仁)이다. 인은 살림의 문화다. 인적쇄신은 곧 그 사원의 능력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발령)로 이어질 것이다. 인력배치에 앞서 승진인사도 예고돼 있다. 사장은 회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역설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점이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다. 사람은 기계가 아닌 이상 업무 역량의 차이가 난다. 만약 차이를 인사에 적용해 서열을 세운다면 쇄신은 곧 청산이 되고 말 것이다.

상대적 소외자들의 박탈감은 당장은 아닐지라도 조직의 화합에 부작용으로 작용할 게 뻔하다. 다 함께 회사의 발전에 발맞춰야겠기에 누구 하나 승진 인사에서 낙오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많지 않은 사원 대다수는 하위직이다. 만약 대승적 차원에서 전사원의 승진이 이루어진다면 소폭이지만 급여의 증가로 이어진다. 급여의 증가는 소위 소득을 늘려주어 구매력을 향상시키는 임금주도성장이 되어 침체한 내수 진작의 작은 밑거름도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 급격히 늘어난 사내 비정규직 문제도 성장을 위한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아니 사람이 먼저인 인본주의적 차원에서 정규직화를 서둘러야 할 때다. 이제 소수 재벌에 의한 수출입국 시대는 장기불황으로 세계무역 전체가 위축되면서 끝이 났다. 그래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도 먼저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라고 말 할 수 있다. 하늘나라 포도원 이야기나 영화 월컴투 동막골의 명장면은 사실 하늘나라나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뤄내야 할, 이뤄나가야 할 우리가 사는 세상, 아름다운 땅의 이야기다.

社 說

5·18 진상 규명 광주 컨트롤타워 시급하다

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37주기를 맞은 광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에 부풀어 있다. 발포 명령, 헬기 사격 등 '그날'의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데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18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5·18 관련 법률 제정과 함께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지역에선 준비는커녕 기관이나 단체별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광주시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그리고 5·18기념재단 등의 진상 규명에 대한 방향성도 통일되지 못한 듯한 느낌이다.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이를 주도하는 핵심 기관과 지원 단체 등의 내부 교통정리가 필요한 데 이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5·18 관련 기관의 역할 조정에서부터 진상 규명 방향 설정, 5·18 관련 기록물 인재 풀 등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큰 그림에 맞게 역할 조정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렇다 보니 5·18 진상 규명은 고사하고 자칫 갑론을박으로 허송세월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5·18 진상 규명은 광주 지역 관련 기관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하나씩 풀어 가야 할 막중한 과제다. 때문에 5·18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고 관련 연구자와 5월 관련 기록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전문가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5·18 진상 규명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부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시급히 이를 구성해서 37년 만의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름에도 발생 AI 상시 대응체제 구축해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시 전국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군산 종계 농장을 비롯해 이곳에서 오골계를 사간 제주·부산·경기·경남 등 여섯 곳에서 AI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게다가 그동안 겨울에만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AI가 초여름에도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방역 당국은 지난겨울 극성을 부렸던 AI가 4월 4일 이후 발견되지 않자 지난달 말 AI 경보를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낮췄었다. 하지만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전국으로 확산되고 말았다.

겨울철에 AI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철새가 날아와 머물고 떠나는 한국의 지리적 특성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의 활동 메커니즘과는 큰 관계가 없을 수 있다고 본다. AI가 여름이면 사라지는 바이러스라면 동남아는 아예 발병이 없어야 하지만, 1년 내내 섭씨 30도를 웃도는 그곳에서도 연중 AI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6~7월에 AI 유행이 지속된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농가에서도 AI는 겨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하고 당국의 방역 대책 역시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사시사철 AI 바이러스가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시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가금류 농가의 신속한 신고도 절실하다. 이번에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 역시 오골계 집단 폐사와 유통 과정에서 농장주들이 엿새가 지나서야 뒤늦게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당국이 AI 발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이 기간 동안 'AI 오골계'가 또 다른 지역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크다.

당국은 신속한 살처분과 함께 군산 종계 농장에서 오골계를 판매한 곳이 더 없는지 추적해야 한다. 광주·전남 역시 진원지로 지목된 군산과 멀지 않은 만큼 차단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뇌 지도

흔히 '천재와 바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들 말한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인간의 모든 능력이 무게 1.5㎏가량의 뇌에서 결정되고 실행된다. 그래서 앨버트 아인슈타인의 뇌는 사후 240개 조각으로 나눠져 연구되기도 했다.

뇌과학자인 김대식 카이스트(KAIST) 교수는 지난 2015년 펴낸 '이상한 나라의 뇌과학'에서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는 남녀의 능력이 다르다'는 실험 결과를 소개했다. 남녀 피실험자에게 다양한 감정을 보이는 남녀 사진을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 보여 주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실험 결과 남녀 간에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 시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다. 여성의 뇌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공감을 만들어 내는 '거울 뉴런' 영역 모두 활성화됐다. 그러나 남성의 뇌는 대부분 본인의 기억만을 기반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여성은 화면 속 인물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감정 상태에 공감했지만 남자는 화면 속 대상이 여성일 경우 감정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다.

문제는 뇌 속의 '지우개'다. 노년기 어느 날, 뇌에 차곡차곡 보관돼 있던 '기억'이 갑자기 지워지는 치매는 극복하기 어려운 걸까? 70~80년을 살아온 자신의 발자취를 기억하지 못하고, 반려자와 가족도 알아보지 못한다.

2011년 개봉된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감독 추창민)는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애잔하게 그린다. 특히 극중에서 치매에 걸린 부인을 둔 할아버지는 더욱 가슴을 찡하게 한다. 치매 노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은 영화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한다. 한 70대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 병시중을 하다 절망적인 선택을 했다. 부인의 목을 조른 뒤 자신은 독극물을 마신 것이다.

최근 조선대 치매 국책연구단이 치매 진단 예측 기술을 개발했다. 유전자 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으로 만든 뇌 지도를 통해 치매 발병 가능성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치매 발병을 줄이면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